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고교시절 기억하나,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몇 년 앞두고 스포츠시설들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던 시절,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시민운동장 담을 넘어 불정취를 사진에 담고자 했던 필자는 경비에 발각되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 보안과에 넘겨졌다. 어린 고교생에게 고문은 없었지만, 하루 꼬박 걸린 담담형사의 모욕적인 수사방식은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굳이 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레도 이 나라가 조금은 자랑스러운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원칙이 최소한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항상 비아냥거리고 난도질하지만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민주주의의 지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보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인문사와 중소기업, 서울지역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그레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

도에 이렇게 국부(國富)가 집중되어 있는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도와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 궁급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 한 국가의 모든 명문대학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지방 사람들이 기대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방경제는 오래전부터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와

소득, 외환보유고는 참여정부시절보다도 못하다. 반면에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부패지수와 개인의 자유도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 평균 경제성장률 4.4% 기록한 참여정부를 '경제파탄 정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할 집권당과 거대보수언론은 지금의 정부를 어떻게 규정해야 옳은가. 국어사전에서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참여정부가 고성장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레도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고 힘들었다. 그레도 참여정부는 실전은 못했지만,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있었다. 현 정부는 조금은 솔직해져야 한다. '서울공화국'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정권유지가 어렵다. 거대보수언론사의 눈 밖에 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학구조상, 지방만이 단결하기 힘들지만 언제까지 침묵할지는 알 수 없다. 국가가 자서정과 기득권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국민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민은 영원한 3류 국민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구호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기득권과 거대보수언론사들은 세종시로 일부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수도가 분할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2009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호의적으로 추정해서 0.2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은 9%대이다. 주가, 국민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것도 있다. 광고할 기업이 지방에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의 거대보수언론사들은 옹비어전거만 부르고 있다. '한국경제, 회복속도가 빠르다', '더블 딥,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 '올해 플러스성장 가능' 등,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어떠한 팩트를 적용시키느냐다. 2009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호의적으로 추정해서 0.2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은 9%대이다. 주가, 국민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전, 대통령 다짐까지 무시하겠다는 건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 이전 대상기업인 한전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차질 없는 혁신도시 조성'을 약속하고 있으나 한전은 온갖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 대통령을 무시하는 한전은 과연 어느 나라 공공기업인지 묻고 싶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부지 조성원가의 10% 인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혁신도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토지주택공사 등에 사육부지와 조성원가의 대폭 축소 및 인하 등을 요구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지로부터 3~4km 거리에 있는 돼지농장의 배설물 해결해야 한다' 요구했다고 한다. 한전의 이 같은 섣부른 태도는 가까운 요구는 이전을 미루려는 사전포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부지 조성원가는 이

미 국토 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까지 된 상태로 가격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부지 축소 요구도 이전을 하더라도 분할 이전을 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부지매입 및 분계약 체결이 미뤄지는 이유가 그때그때 달라진 점에서도 한전의 속내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적자가 나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사전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다. 이쯤 되면 한전이 어떻게든 이전을 미루려고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혁신도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간다'고 약속했다. 대다수 국민도 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한전은 괜한 억지를 부리지 말고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불안한 내년 물가, 비상 결린 서민경제

주요 품목의 물가가 줄지어 오를 전망이어서 내년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부터 내년 물가가 불안한 것은 원유와 철강·구리·원당과 같은 국제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료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시기가 남겨 놓고 있는 셈이다. 가전 제품은 원자재가격 상승 외에 전력료가 많이 소모하는 품목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도 추가 인상 요인까지 있다. 원유 값이 계속 오를 경우 버스·택시·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들먹거리기 수밖에 없다. 원당 값 역시 크게 오르면서 설탕과 빵·과자 등 생필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마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4.9% 오르며 고용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 국민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경제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보험료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 당연히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투자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물가상승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기금은 운용 효율성과 과잉 인력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행태는 비효율적이다.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에 앞서 비효율성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신삼식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에는 피부건조증과 메마르고 갈라지는 겨울철 손,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피부는 각질층과 지질막이 있는데 피부 각질층이 손상되면 수분손실이 많아져서 피부 건조증을 일으킨다. 특히 차고 건조한 바람이나 뜨거운 물에 자극을 받게 되면 가려움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피부 건조증은 얼굴이나 몸보다는 상대적으로 피지선이 적은 허벅지, 복부, 팔다리 부위에 발생하는데 특히 정적이 부위가 심하게 일어난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가렵거나 피부 갈라짐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삼가도록 한다. 꼭 비누를 사용하려면 약산성이나 중성 제품을 사용하면 낫다. 발은 일년내내 답답한 신발 속에서 혹사를 당한다. 요즘처럼 차고 건조한 날씨에는 발이 메마르고 푸석해지기 쉽다. 심하면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피가 나면서 아프고, 또 가렵고 육신거리며 빨갱게 부어오르기도 한다. 발뒤꿈치와 발바닥에 잘 생기는 굳은살은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발 냄새의 원인이 된다. 발뒤꿈치가 두꺼워지고 심한 경우 마른 눈바닥처럼 갈라

겨울철 피부질환과 피부관리

뿐 아니라 목욕 후에 얼굴이나 몸이 당기고 거칠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피부건조증은 목욕을 자주하는 사람이거나 노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것이었으나 때를 미는 잘못된 목욕습관으로 인해 20~30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난방 시설이 잘 보급되어 실내 온도가 높고 건조하다. 샤워나 목욕을 자주하게 되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일수록 잦은 목욕이나 비누, 패스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건강에 해롭다. 이는 피부 지질과 각질층이 손상되어 피부의 수분을 더 빼앗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건조한 계절에는 탕에 들어가는 목욕보다는 샤워를 가볍게 하도록 하고, 그 횟수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운동 후 해 땀을 흘린 경우나 샤워를 매일 해야 하는 사람은 비누, 패스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는 것이 좋다. 패스전을 사용해 몸을 씻는 것은 역지로 각질층을 벗겨 내는 것이고 심할 때는 피부의 아래층인 진피까지 벗겨내기도 해 피부건강에는 무척 해로운 일이다.

진다. 손, 발바닥에 각피증은 각질이 과도하게 형성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전적 또는 후천적으로도 발생한다. 갱년기 후 여성에서는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손발 바닥에 과각화증과 균열이 생기며, 오래 걸거나 발에 맞지 않는 딱딱한 신발에 자극을 받으면 피부보호를 위해 각질층이 쌓여서 나중에는 굳은살이나 타노이 된다. 또 건조이나 무좀과도 구별을 해야한다. 각질이나 굳은살을 방지하려면 평소 집에서 맨발로 있지 말고 양말을 신어 발뒤꿈치를 보호하는 것이 좋고, 발을 씻고나면 발 전용 크림이나 로션을 충분히 발라 수분과 유효분을 보충해 준다. 일주일에 한번은 발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피로를 풀어준 후 손발 전용 스크럽 제품을 바른 뒤 마사지가듯이 충분히 문질러 준다. 각질이 심한 발뒤꿈치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랩으로 싸고 잠자리에 들면 좋다. 각질이 보기 흉해서 잘 벗겨내고 싶다면 부드러운 타월이나 브러시로 살짝 벗겨내고, 목욕탕 등에서 돌이나 깔로 벗겨내는 것은 세균의 이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삼우 맑은피부과 원장)

잘못 들어선 고속도로에서 후진 '위험천만'

요즘은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전국 고속도로 어디를 가든 내비게이션만 잘 보고 가면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다고 해도 시야가 어두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도 헛갈릴 때가 있다. 그러다가 분기점에서 다른 방향이나 다른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램프구간(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비상등을 켜 채 길 가장자리 가드레일 쪽으

로 바짝 붙어서 서서히 후진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다. 대부분 램프 구간은 곧은길보다는 급커브 길이기 때문에 시야가 어둡고 고속도로 특성상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애꿎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마저 준다. 그런 만큼 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는 절대로 후진해서는 안 된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고

송광운



“북구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이 수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졌는데 더욱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이나 환경미화원, 결혼 축하의금, 예사 시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기탁을 통해 실시할 기금이 모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제2회 북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보라양(전남대 신방과 4년)이 장학금전달식에서 밝힌 소감이다. 최양은 제2회 북구장학회 수여식에 163명의 장학생을 대표, 소감문을 발표했다. 성적 우수장학생인 최양은 북구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이 기억 거부나

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눔의 공유를 통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낸다. 연말이면 거리에 등장하는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에 앞에 늘어진 개미정성이 온도를 높인다. 서민들의 주머니나 코 홀리게 어린이의 저금통에서 나온 작은 돈이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로 세상을 뒀힌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 서 '석과불식(碩菓不食)'이란 사자언어를 떠올린다. 큰 과일을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겨둔다는 뜻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바로 뒷사람을 생각하는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는 말이다. 배가 고파 마

'희망의 바이러스' 나눔과 상생

특정인의 기탁이 아닌 소액 다수의 '개미장학금'이어서 더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북구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장학회를 설립했다. 2011년까지 80억 원의 기금조성이 목표다. 지난해에는 84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나 올해는 2배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 년 사이 수혜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북구장학회의 순항을 예고한다. 북구장학회는 최양의 소감문대로 소수의 기부자 아닌 개미군단의 정성어린 기탁으로 기금이 모아졌다. 자신들의 처지도 어려운 노인이나 가정주부, 심지어 장애인들까지 기부대에 동참하고 있다. 월 1만 원씩 정기적인 기탁을 하고 있는 주민이 1천 명이 나 된다. 올 10월 말까지 기탁건수라면 8천500건에 이른다. 개미장학금은 나눔과 상생, 배려 속에서 만들어진 희망의 바이러스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만들어지듯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준다. 장학금기부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을 돕는 이웃돕기 성금도 마찬가지

지마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일의 새봄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희망의 씨앗이다. 또한 조상님들의 미덕으로 새들의 겨울양식을 위해 몇 개의 과일을 남겼던 소박한 마음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이며 나눔이고 소통이다. 금동위기 여파가 오래가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고통받는 이웃이 늘어나고 있다. 겨울은 없는 사람에게 더 춥고 견디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올 겨울은 금융위기 여파에 신중플루까지 겹쳐 기부 운동마저 식어 든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온다. 올해도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거리에는 행복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진다. 다행히 광주지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기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주지역 분야별 기부액 가운데 개인기부가 20%가량 늘어나 서민들의 '나눔정신'이 유난히 돋보인다. 우리 모두 따뜻한 애정이 필요한 때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나눔과 배려가 절실할수록 '석과불식'의 마음 한 조각이 필요하다. (북구청장)

해의 명품소풍극성... 자제했으면

지난 여름방학기간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갔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유명상품 매장이 들려있는 로마 스페인광장 인근 콘도리 거리의 한 매장에 구경삼아 있는데 이곳에 한국인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왔다. 그런데 잠시 후, 내가 한국인이라는걸 약간 숨기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 한국 젊은 층들은 관광이 아니라 놀람게도 명품들을 사러 온 것이었다. 단순히 한 두 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명품 소풍을 하러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다. 거기에는 아예 한국인 점원이 대기하면서 한국 손님들을 맞이했다. 브랜드 관광을 위해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판매하기도 하는 매장에는 물건을 대신 사주는 명품 아르바이트생도 있다고 한다. 매년 방학 때 로마와 파리의 소풍거리는 이런 한국인 명품 소풍족 대학생들로 붐비더니 이번 좀 줄어들지는 생각이 들었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無等鼓

위렌 버핏은 여든 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헤더웨이를 운영하는 투자의 지존으로 추앙받고 있다. 빌 게이츠에 이어 지구촌 두 번째 부자이기도 하다. 손에 물 한 방울 물리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 일반의 통념을 깨뜨린 그의 특이한 일상이 최근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고, 14

전하며, 곁에 비서나 운전기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임대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가용 비행기로 여행을 하지 않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67개의 자회사를 지닌 버크셔 헤더웨이 산하 사장들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사장들을 소집하는 법도 없다. 일 년에 딱 한번 그 해의 목표 배달을 해서 모은 돈으로 땅을 매입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서른에 결혼,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시 중심가에 있는 방 3개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한 이래 50여년 가까이

위렌 버핏



계 최고의 부자반열에 올라선 버핏. 그의 생애는 자신이 노력해 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계적 때문에 더욱 감동을 준다. 빈자들을 위해 31조 원을 쾌척한 그가, 상류사회의 모임을 마다하고 집에서 팝콘을 튀기거나 TV를 돌리며 여가를 즐긴다는 게 상상이나 가는가.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